

1, 2, 3을 활용하여 '사회적 합의와 법'에 대해 논술하시오. ('연결고리'와 '광의의 주제어')

(1, 2, 3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법'에 대해 논술하시오.) - 이 발문으로 변형 출제 가능('주제어')

진정한 사회적 합의는 단순히 단편적인 합의들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 내 상호 피드백과 그 전제로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얻어진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는 법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데, 여러 이유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합의에 기초한 법률은 그 항구적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1과 2는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그린다. 아테네 법률은 단지 거주를 통한 암묵적 동의만으로 정당화되는데, 그런 암묵적 동의에만 기초한 법률은 각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피드백 가능성을 차단하면 내용에 있어 인간본위의 권리를 위협하는 법률이 나타나기도 한다. 2의 법률은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제정 과정이 형식적 법치에 그쳤고, 내용에서 또한 한계가 나타났다.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 왜곡되는 경우 피드백에 앞서 의견 자체가 편향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3)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가막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나름의 규범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리적 요인을 이유로 그들이 대한민국 국법과 괴리를 느끼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상호 피드백의 결여나 지리적 요인 등을 이유로 온전하지 못한 합의에 이를 경우 그에 의한 법률은 그 효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법률이 정당하고 항구적으로 기능하려면 사회 전반의 진정한 동의를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세 제시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는 기형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을 구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합법성만을 갖추고 있는 법률에 근거하는 형식적 법치국가였던 독일이 극단적인 나치즘으로 변모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소통'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진정한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선언이 허울뿐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소통의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소통은 구성원들의 견해를 담아내는 그릇이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1,037자)